

제 160 호

대림 제 4주일

1975. 12. 21.

# 순정이

발행인	김종택
인쇄인	범석규
주간	조성호
편집	한상갑

편집실 : 전주시 서노송동560의6  
전주교구청 내 (전화 35098)

□ 감 론 □



## “죄인은 신부에게 강복하소서”

박중신 신부

한해를 보내는 마음은 숙연합니다.

새해를 맞아 설계했던 많은 청사진들을 어디까지 완성했으며, 왜 미완성으로 내년까지 이월(移越)해야 하는가? 아니면 왜 실패했는가? 이처럼 분석하고 수정하는 태도는 누구나 가져보는, 누구나 가져야 하는 반성과 검토를 통한 발전의 요소가 됩니다.

날 품삯으로 생계를 잇는 노동자도, 학문을 연구하는 학자도, 평범한 셀러리맨이나 농사짓는 농부들도, 세상을 내려다만 보고 산다는 그들 권좌위의 어르신네들도, 대 재벌(財閥)이라는 특권층도 세모(歲暮)를 맞는 마음은 같은 것입니다.

다만 생각하는 방법과 범위가, 또 가치기준이 다를 뿐이겠지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십자가 뒤를 따르는 우리들은 어떤 세도를 받고 있습니까?

우리가 보낸 한해가 과연 주님의 뜻을 실천하고 생활한 신앙의 기쁨으로 충만한 한해였는가를 다시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자들은 성탄전에 판공성사를 통해서 자신의 생활을 반성하고 참회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다시한번 점검합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은 고백성사의 의의를 충분히 알고 많은 효과와 은총을 받습니다만, 간혹 영똥한 고백으로 청죄(聽罪)사제를 당황하게 할 때가 많습니다.

“죄인은 신부에게 강복하소서”로 시작해서 시종일관 다른 사람의 잘못만을 고발하는 고발형, 심계명의 조목 몇을 외우고 끝나는 암송형, 별로 지은 죄가 없다는 철사형, 생각이 안난다는 망각형, 알아들을 수 없도록 빠른 속도로 말하고 나가버리는 기관총형, 조. 만과 몇번 주일 몇번을 곁했습니다 하는 간단 명료형, 무슨 말인지 모르게 혼자 중얼. 중얼하다가 사죄경도 듣기전에 스스로 퇴장하는 우물쭈물형, 고백소에 와서야 성찰을 시작하는 입기웅변형, 벌벌 떨다가 몇마디 중얼거리고 끝내는 공포형 등등 고백의 참뜻을 망각하고 충분한 준비없이 고백성사에 임하는 태도는 하나님앞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어 통회하는 참회자의 자세가 될 수 없습니다.

판공성사는 냉담자라는 누명을 벗기 위한 수단이 아니며, 그것이 이루어지는 고백소는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하는 장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곳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주님은 성탄날에만 오시고 그 때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언제나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가운데에서 살기를 원하시고, 온갖 좋은것을 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임실 전주교회 박중신 신부)

## \* 이 주일의 미사 \*

가톨릭 기도서 P 221

### (1) 개회식

□입당송 하늘은 위로부터 이슬을 내리고, 구름은 비처럼 정의를 내리라. 땅은 열리어 구원을 싹트게 하라.

### (2) 말씀의 전례

□제1독서(사무엘 7:1-16, 경향잡지 p12월호)  
다위의 나라는 주님앞에 영원하리라.

□찬가송 ◎하느님의 사랑을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하느님의 사랑을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 입으로 그 진실하심을 대대에 전하리라. “영원한 사랑을 이룩했다” 하시며 주는 진실하심을 하늘에 공회하셨나이다. ◎

□제2독서(로마서 16:25-27, 성서 p370)

오랜 세월 동안 잠추어 두셨던 그 심오한 진리를 나타내 보이셨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주님의 종이오니,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소서. 알렐루야.

□복음(루카1:26-28, 성서 p122)

임태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이다

### □신자들의 기도

1. 주여, 모든 신자들이 입으로만 당신을 찬미하지 말고, 행동이 따르는 회개와 회생으로 당신의 성탄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여...

2. 정의와 평화의 주인이신 천주여, 어둠속에서 당신의 뜻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고통을 위로해 주시고 악을 일삼는 자들에게 그들의 무지를 깨우쳐 주사 이 세상에 참다운 정의와 평화가 실현되게 하소서. ◎

3. 본당에서 멀리 떨어져 사는 공소 신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여, 저들이 어려움 중에서도 변함없이 신앙을 증거하고 있음을 어찌여 여기시고, 사목자들이 더 많은 관심을 그들에게 보여주게 하소서. ◎

### (3) 성찬의 전례 □봉헌 □성찬식

□영성체송 보라, 동정녀 임태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엘마누엘이라 부르리라.

## 순정이 산책



구세주 오셨네!



# 여기 이 형제들과 성탄의 즐거움을 나누시다

## 사랑은 말로만

「풍채가 그럴싸한 분이 안경테를 번쩍이며 자가용을 내린다. 길가에 앉아 구걸하는 아주머니 옆으로 다가가더니 인자한 웃음을 띄며 컵속말을 건넨다. 그리고는 유유히 다시 차에 올라 갈길을 재촉한다. 잘알려진 신자여서 그 컵속말이 하도 궁금해서 아주머니더러 물어보았다. “무슨 말을 하느냐”고. 무표정하게 던지는 대답이 “추위에 떨지 말고 돈이 있으면 따끈한 실렁탕이나 사먹으라”더라.」-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람 웃기지 말라고요? 천만에요. 우리 대부분의 신앙 생활이 그런걸요.

〈사랑은 말로만〉이런거 아닙니까?

### 독일에서 온 편지

+안녕하십니까?

갑작스러운 편지에 놀라시리라 생각하실것 같아 조심스럽군요.

다름이 아니오라, 153호 “순정이”를 읽고 생각한 바 있어 글월 올리나이다

매달 조금씩 모았던 금액을 이번 성탄을 맞이함에 좀더 진요하게 쓰기를 원했는데 우연히도 “순정이”를 읽고 나환자촌의 공소 건립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것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12월 4일 이곳 독일에서 350DM(마르크) 송금시켰어요. 약 70,000여원 될꺼예요. 12월25일 전에 도착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12월20일경에 외환은행(서울)으로 부터 통보가 오면 전주 국민은행에 가서서 찾으시면 됩니다

(中略)

즐거운 성탄절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1975. 12. 8 서독에서 박 엘리사벳

###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주에서도 구세군의 자선남비와 그 종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성탄을 앞두고 차가운 날씨에 고생하는 불우한 이웃들을 돕자는 움직임들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자꾸만 질박해지는 호주머니 사정때문에 짜증조차 나기도 합니다만, 이렇게 작박해지는 나날을 사는 우리에게서는 청량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교회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교무금을 내라고, 불우 이웃돕기 성금도 내라고, 소리들이 많지요. 아마 짐짓 벗고 다리뻐울 날이 없지요?

그런데 이상한 일은 과부가 등전 두닐 내는일이 더 어렵텐데도 그런 일들을 구경하기가 더 쉽다는 것입니다. 나환자촌 공소짓기 성금만해도 그렇습니다. 이쯤조차 밝

히지 않고 금반지를 빼는가 하면, 10만원씩이나 보내기도 했습니다. 어찌 어찌해서 알아 보았더니 10만원을 보내주신분도 그렇게 넉넉한 살림은 아닙니다. 이국만리에서 말도 감정도 소통이 잘되지않는 어려움을 겪으며 돈을 벌기 위해 집을 떠나 고생하는 간호원의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후의 심판

“이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악마와 그의 졸도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속으로 들어가거라.

너희는 내가 주렸을 때에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말랐을 때에 마실 것을 주지 않았으며,

나그네 되었을 때에 따뜻하게 맞아주지 않았으며,

또 병들었을 때나,

감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아주지 않았다.”

이 말을 듣고 그들도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주님, 주님께서 언제 굶주리시고 목마르셨으며,

나그네 되시고 헐벗으셨으며,

병드시고 감옥에 갇히셨던 일이 있었기에

저희가 알고도 돌보아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임금은

“분명히 말하지만

여기 있는 이 사람들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해주지 않은 것이다”하고 말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주받은 사람들은 영원히 별받는 곳으로 쫓겨날 것이며, 축복받은 착한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들어갈 것입니다.

### 어떻게 하시겠어요?

성탄절이 얼마 안남았는데 무슨 선물을 준비하셨습니까?

판공성사 보셨다구요? 좋습니다.

교무금도 신입하셨다구요? 잘하셨습니다.

이제 다 끝났다구요? 글썄요?

익산농장의 나환자촌 공소를 짓는 일에 대해서 생각해보셨습니까? 그간 “순정이”를 통해서 여러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주교구에 6만명의 신자가 있는데도 그 반은은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이(利)보다는 해(害)만 있다고 판단하셨습니까?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해주지 않은 것이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우들의 건강 관리 센터◎

### 영진약국

-조제약 전문-

김을태(베드로)

☎육교열 중앙시장동

(전화 ㉠ 4577)

격려해 주신 여러 어른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강가루표 양말 전북 직매점❖

### 주주네집

□전주 풍남동 은행나무 골목 ㉠6508



전주 판공성사 (주)신원

김능환(원선시오) T 2-3332

□양 지 쪽□



## “메아리 합창단”을 살릴 길은 없는가?

장 동 주

우리 진주교구내에서 힘있고 우렁차게 십금을 울려야 할 합창대의 조직과 운영이 약한 것은 성직자나 신자들이 깊이 반성해야 할 일입니다.

음악은 우리의 거친 생활 감정을 맑게 씻어주는 순환제입니다. 맑고 정다우며, 숭고하고 위엄에 넘치는 음악이야말로 우리의 마음을 경건하고 신성한 믿음의 세계로 우리를 감화시켜 인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는 점점 개인주의가 발달하여 가진 자와 없는 자간의 갈등, 사람과 사람 사이, 이웃과 이웃 사이, 단체와 단체 사이에 높은 담을 쌓고 그 속에서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하는 일에 광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속에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이 허다하나, 이러한 참뜻을 절절한 젊은이들이 우선 교구를 대표할 수 있는 합창단 부터 만들어 교구내의 모든 음악행사에 적극 참여 하여 주님의 뜻을 음악을 통하여 전달하는 음악의 전도사가 되어보자는 데에 뜻을 모아 탄생한 것이 바로 “메아리 합창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73년에 태어난 메아리가 3년동안 어려운 여건하에서나마 사회에 봉사하고 교회의 음악 전도사로서 미약한 활동을 해왔으나 앞으로 더욱 발전해야 할 메아리가 해산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은 매우 가슴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진 문제를 대강 요약해보면

첫째 : 연습실과 울젠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가톨릭센터에서 회의실이나 강당 또는 휴게실등 그때 그때의 형편에 따라 빌려 왔고 악기도 편의를 봐 주었으나 연습으로 인한 소음으로 가톨릭센터에 지장이 많았습니다.

둘째 : 재정적인 뒷받침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단원들이 매월 회비를 거출하여 (제 40여만원) 악보 프린트 대금이나 책을 구입 하는데 충당하고 위문, 공연시의 위문품이나 경비는 임시회비를 별도로 거출해서 충당했으므로 수입이 없는 단원들은 자연히 이탈해 나갔습니다.

셋째 : 단원 확보가 어렵습니다. 남자들의 테너와 베이스 파트의 부족은 매우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여러가지로 시도해 보았으나 현재의 체제로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고, 또한 고정적인 반주자의 확보가 어렵습니다.

네째 : 사기저하와 참여 의식이 부족합니다. 우리 교구내에는 많은 음악인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사회나 학교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것 처럼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교회에 적극 참여 하여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지 않아 메아리를 물 건너 불구경 하듯 하는 현실입니다.

이상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보았습니다만 공의회 이후 우리의 교회도 사회속에 뛰어들어 온갖 어려운 문제들과 싸우며 해결해 나가는 능동적인 구령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것은 매우 기쁜 현상입니다만 그반면에 교회를 멀리하는 냉담자가 많은 사실도 깊이 반성해야 합니다. 성가를 아무렇게나 불러 시들은 성가, 맥 빠진 성가가 되어 감동을 주지 못하여 성당에 앉아 있어도 영혼과 육신이 분리 되어 별로 은혜를 받지 못하고 헛되이 돌아가는 일이 많으니 마치 학교에서 소위 「개근 낙제생」 격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감안할 때 비단 「메아리에 대하여 어떻게 긴급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인가?」가 문제 이지만, 그보다 앞서 근본적으로 교회의 성가를 장기적인 안목을 통해서 육성시켜 나가는 범 교구적인 사업으로 추진되어 발전해 나가는 날이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신부님들의 영혼을 움직이는 훌륭한 강론에 좋은 음악으로 많은 교우들에게 경건함과 기쁨의 감동을 주어 눈부시게 발전하는 교회로 성장 시켜야 할 시기라고 생각되어 존경하옵는 주교님, 그리고 신부님과 교우들에게 호소하는 바입니다.

(메아리 합창단 지휘자)

## 요심이 (126) 김병오



### □ 신간 안내 □

영혼의 일기 1,400원  
당신은 왜 200원

성 바오로 서원 (T 3398)

### ◎ 의산 농장 나환자촌

공소짓기 성금 주신 분 ◎

서독 박 엘리사벳

70,000원

진주 방직저삼회 일동

75,000원

이리 창인동 진주교 삼형제

3,000원

누계 금만지 1점,

현금 1,344,300원

### \* 타자기 수리 \*

전주 뉴 타자 학원

(진주 간호전문학교 앞)

전주시 남도송동 605-1

원장 신송무(바오로)

전화 6664

타자기수리, 취업알선, 수시검정

### \* 신자들의 건강 센터 \*

\* 신자들의 집 \*

성심당 한약방

대지 사진관(2층)

이상범(필노리아노)

육교길 구 북부캐키장 옆

전화 6544

### \* 신부화장. 드레스전문 \*

(교우 특별 우대)

윤경미장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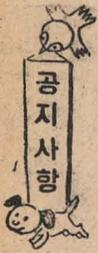
정화미용학원

이리시 창인동 1가(역전앞)

전화 4705

대표 최윤경(유리안나)

제26지구 각 본당 소식



1. 新正 連체를 善用하여 당신의 信仰生活에 活力素를 供給하지 않으시겠습니까?  
 ○ 제9차 남섬 꾸르실로 (76년 1월1일 오후 5시-4일, 가톨릭센터)  
 ○ 본당 신부님께 상의하십시오(회비: 전주 시내 교우...5,000원, 지방교우...4,000원)
2. 그리스도 공동체 목상회: 1976년 1월1일 오후2시~3일 (2박 3일) 전주 가톨릭센터에서. 회비: 3,000원 새해를 맞이하여 직장인들을 위한 목상회이오니 많은 분들의 참석을 바랍니다.
3. 제7차 전주교구 주일학교 본당 교리 교사 연수회: 1976년 1월12일 (월)-15(목) 전주 가톨릭센터에서. 참가 본당에서는 12월 31일까지 신청바람.
4. 사제양성 후원회 총회: 새해를 맞이하여 사제양성 후원회 대의원회 총회를 소집하오니 많은 참석바랍니다. \*1976년 1월 1일 12시, 가톨릭센터에서. (참가자) 각 본당대의원 및 성직자. (참가보고)12월30일
5. 35사단 위문 (24일 밤9시), 교도소 위문 (28일 오전11시)
6. 조국을 위한 월요 기도회 (22일 <월> 밤7시반, 가톨릭 (센터))

(중앙)

전화 ③3651 주임 신부 이대권  
 ③3874 보좌 신부 김동홍  
 사도 회장 이상용

1. 판공성사는 성탄절 안으로 끝냅니다
2. 성모회 월례회 (공식미사 후)
3. J.O.C 간이 식당 (24일 밤 7시부터)
4. 교리반 모두 방학 (오는 주일부터)

(노충동)

전화 ③7032 주임 신부 함승천  
 사도 회장 조해형

○교무금 자진 신입, 납부합니다

1. 애령회 간부 월례회 (오늘 10시미사 후)
  2. 재속 형제 월례회 (다음 주일)
  3. 합동 고백 못 하신 분의 판공 일정 22(남노), 23(중노1가), 24(인후, 유아, 신교)
  4. 성당 신축 헌금 누계 4,248,627원  
 이규하(35,000원), 이자 헌금 89,000원  
 (누계 1,021,830원)
- 새 성당 등 14개 (각 1만원씩) 뜻 있는 분 접수 바람  
 □신축 성미 2회 (누계 236말 5회)

(덕진)

전화 ③ 2182 주임 신부 박종근  
 사도회장 김용환

1. 본당 합동 판공 (22일 저녁 7시)  
 병자 성사 (23일)
2. 성인 예비자 입교식 (24일 자정 미사)  
 어린이 성세식 (24일 오후 4시)
3. 성탄 전야 행사 (24일 오후 7시)
4. 35사단 장병 성세식 및 미사 (24일 오후 9시)  
 ○주례: 김재덕 주교 ○장소: 35사 군인교회
5. 사도회 상임 위원회 (오늘 공식미사 후)
6. 서 말가리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성탄 준비 및 제대 초 봉헌

(복자)

전화 ② 5238 주임 신부 김종길  
 사도 회장 조성호

1. 영세식 (23일 오후 7시반): 대부분과 6시반까지
2. 성탄 합동 감사 미사 불현에 빠지지 맙시다
3. 성탄절 행사 (24일 밤)  
 ①주일학교 성가 발표회 (7시 반-8시 반)  
 ②각 반 대항 율놀이 (8시 반부터)  
 \*상금 1만원 \*반 선수는 4명이나 출석률도 잡조 시상  
 ③성탄 복권 추첨 (11시, 1배 100원)
4. 성탄절 미사: 전야 (24일 밤 7시), 자정 (25일 0시), 낮 (25일 10시)

(서학동)

전화 ③ 2276 주임 신부 김영일  
 사도 회장 박장준

1. 성탄 자정 미사 (24일 밤 11시 반)
2. 22일-24일까지 아침미사
3. 성탄절 특별 헌금은 교도소 위문에 일부 사용  
 여러분의 성심 성의를 부탁드립니다.
4. 부득이 판공성사 못 보신 분은 속히 보세요  
 □군인 위문용대 12,500원, 감사합니다.  
 축결혼 (27일) 신랑 김봉건, 신부 박수옥

(전동)

전화 ② 3222 주임 신부 김환철  
 보좌 신부 한용섭  
 사도 회장 양문모

1. 성탄 행사  
 23일 저녁 7시: 영세식, 미사후: 성탄의 밤(학생회)  
 24일 저녁 7시: 어린이 미사, 8-10시: 가족과 단체의 합창, 11시: 축등행렬, 12시: 자정 미사 (부주교님 주례)  
 25일 오전 10시: 낮미사 (주교님 주례) 오후 2시와 7시: 미사
2. 피미시움 (오늘 오후 1시 반)
3. 장우회 우정의 밤 (25일 밤 7시미사 후, 사제관)  
 50대 이상의 남자만을 초대합니다-회장
4. 주임신부 영명 축일 (26일)  
 25일 10시 미사 후 축하식 있음

\* 각 본당의 금주간 소식과 지난주일 봉헌금 \*

지구	본당	소식	봉헌금	지구	본당	소식	봉헌금
제1지구	고길부수신배움	어려운 사람을 도움시다	5,000원	제3지구	주현동 창인동 황동	성탄절 영세식	55,530원
		성탄 영세식	26,690원			성탄절 영세식	44,215원
제2지구	대문울동충합	3대대 장병 위문	6,610원	제4지구	중노충진자서학동	성모회 모임	6,980원
		테레사 총회	3,250원			35사단 장병 영세식 및 미사	51,696원
제3지구	고금여산	성탄 기념 세례식	16,310원	제5지구	무장전남순입	성탄절 영세식	4,090원
		성탄 기념 세례식	11,656원			사랑의 선물 보내기	원원원원
		성탄 기념 세례식	4,630원			성탄절 영세식	13,430원
		성탄 기념 세례식	16,515원			사도회	원원원원
						사도회 임원회	6,010원